

선변 編著

# 思想檢證N題

釋迦誕辰日 紀念  
佛教特輯

# 사상검증 N제

1.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애욕(愛慾)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단적 쾌락이나 극단적 고행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보 기>

- ㄱ.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변의 자이를 깨달아야 한다.
- ㄴ. 고통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애욕을 없애야 한다.
- ㄷ. 고통뿐만 아니라 쾌락에도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해야 한다.
- ㄹ.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음과 없음 모두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만약 갈대 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내면 다른 하나도 쓰러질 것이다. 만일 다른 하나를 빼내면 저 하나도 쓰러질 것이다. 정신과 물질[名色]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으니, 의식이 소멸하므로 정신과 물질이 소멸한다.
(나)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① 외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 무명(無明)을 지향한다.
- ②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청정한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③ 올바른 말을 하는 수행보다는 올바르게 노력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 ⑤ 탐냄[貪]과 성냄[瞋]과 어리석음[癡]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도(中道)를 실천한다.

3.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연(因緣)에 의해 생기지 않는 법(法)은 없으니, 공(空)하지 않은 법은 없다. 모든 것이 공(空)하지 않다면 생(生)과 멸(滅)도 없고, 사성제(四聖諦)도 없다.

을: 다섯 가지 의식(五識)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어느 때는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으니,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일체는 오직 의식뿐이다.

<보 기>

- ㄱ. 갑: 일체는 공(空)하지만 영원히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한다.
- ㄴ. 을: 마음의 작용(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있을 수 없다.
- ㄷ. 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요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ㄹ. 갑, 을: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를 부정하여 진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생은 미혹한 마음 때문에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기에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으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일으킴에 게으름이 없다면 누구든지 깨닫게 된다. 자성을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 ① 우리 모두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사실을 직관해야 한다.
- ② 경전을 공부하기보다는 문자 밖에서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므로 주체적인 해탈을 지향해야 한다.
- ④ 단박에 깨닫고 나면[頓悟] 누구든지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 ⑤ 언어를 부정하여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만이 참된 가르침이다.

# 사상검증 N제

5. 불교 사상이 가,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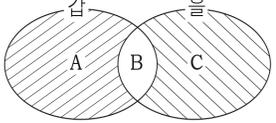
갑: 중생이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 관조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본래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고,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바로 반야 삼매(三昧)이다.

을: 중생의 여섯 가지 근원(六識)은 일심(一心)에서 생겨났으나, 그것은 도리어 자신의 근본을 배반하여 모든 번뇌가 이로부터 나온다. 번뇌를 떨쳐버리고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② 깨달음을 얻으려면 연기(緣起)를 깨닫고 은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깨달음의 경지는 글[文字]으로써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 ④ 깨달음의 경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이다.
- ⑤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 엄격한 시비(是非) 판단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6. (가)의 불교 사상이 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중생이 부처임을 깨우쳤다면 모든 중생이 곧 부처이다. 모든 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자기의 마음을 좇아 진여(眞如)의 본성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p> <p>을: 중생이 곧 부처임을 미혹한 범부(凡夫)가 단박에 깨우쳤다 하더라도 오랫동안의 습기(習氣)는 단박에 버리기 어렵다. 깨달은 후에도 법력으로써 익히고 닦아야 한다.</p>
(나)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0;">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 공통의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 기>
- ㄱ. A: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은 단박에 깨달을(頓悟) 수 있다.
  - ㄴ. B: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한다.
  - ㄷ. B: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불성(佛性)이 형성될 수 있다.
  - ㄹ. C: 중생은 진리를 깨우친 후에도 정(定)과 혜(慧)를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도에 들어가는 문(門)은 많지만, 요약하여 말하자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 주장 역시 이미 여러 생에 거쳐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하며 점차 익혀오다가 금생(今生)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한꺼번에 모든 일을 마친 것이니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선종과 교종은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	✓		✓	✓	
본성을 직관하기 위해 참선보다는 경전 공부에 힘써야 한다.		✓		✓	✓
불성을 깨달았더라도 그릇된 습성[習氣]이 남아있을 수 있다.	✓	✓			✓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여덟 가지 올바른 길[八正道]을 닦아야 한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 사상검증 N제

### 번외 O/X 퀴즈 - 수능특강 Ver.

사상가와 그 사상가의 입장이 옳게 짝지어진 것에는 O, 그렇지 않은 것에는 X표시를 하시오.

1. 석가모니 -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
2. 석가모니 - 팔정도의 하나인 정견(正見)은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
3. 중관사상 - 유(有)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無)로 돌아가야 한다.( )
4. 유식사상 - 의식을 제대로 알고 수행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5. 선종 -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즉 진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
6. 원효 - 일심에는 깨달음의 경지와 무명(無明)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
7. 지눌 - 정혜쌍수(定慧雙修)는 돈오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다.( )
8. 원효, 의천, 지눌 - 서로 다른 종파들의 궁극적 지향점이 같음을 인정하며 종파의 갈등을 화해시키고자 했다.( )
9. 초기 불교 - 불성을 직관하기 위해 자아를 탐구해야 한다.( )
10. 원효 - 단박에 깨달음을 교리 공부보다 우선해야 한다.( )
11. 초기 불교, 유식사상 - 모든 집착의 무더기들은 인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
12. 유식사상 - 현상 세계를 만들어 낸 마음을 비우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 )

# 사상검증 N제: 정답과 해설

## 빠른 정답

1	2	3	4	5
⑤	⑤	③	⑤	④
6	7			
②	①			

(O/X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7번 문제 해설 뒤에 있음)

## 해설

### 1. 석가모니의 기본 입장 이해

#### 정답 해설

- ㄴ. 멸제(滅諦)에 대한 설명이다.(수특 43p)
- ㄷ. 석가모니는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 ㄹ. 석가모니는 무명과 애욕을 없애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중도를 닦아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해설

- ㄱ. 석가모니는 불변의 자아란 없다고 본다.

### 2.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

#### 정답 해설

- ⑤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탐·진·치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해설

- ① 석가모니는 무명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 ② 석가모니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청정한 불성이라고 본다. 고로 불성은 형성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올바른 말을 하는 수행은 정어(正語), 올바르게 노력하는 수행은 정정진(正精進)이다. 정어와 정정진 모두 팔정도(八正道)이므로, 둘 다 실천해야 하는 수행의 방법이다.
- ④ 석가모니는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는

것이지, 현상계에는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변화하는 나'는 존재한다.

### 3. 세친과 용수의 사상 비교 이해

#### 정답 해설

ㄴ. 세친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한다.

ㄷ. 세친은 요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으면 해탈할 수 있다고 본다.

#### 오답 해설

- ㄱ. 용수는 일체는 공하므로 영원불변한 실체란 없다고 본다.
- ㄹ. 용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勝義諦]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언어적인 분별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된 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 4. 선종 불교 사상의 이해(혜능)

#### 정답 해설

⑤ 혜능은 언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다.

#### 오답 해설

- ① 혜능은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해야 한다고 본다.
- ② 혜능은 문자 밖에서 깨달는 것을 중시한다.
- ③ 혜능은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즉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스스로의 수행을 통한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과 해탈을 강조했다.
- ④ 혜능은 돈오돈수를 주장하며 자성을 직관해 단박에 깨달게 되면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보았다.

# 사상검증 N제: 정답과 해설

## 5. 혜능과 원효의 공통 입장 이해

### 정답 해설

④ 불교의 열반적정(涅槃寂靜)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해설

① 교종의 입장이다. 혜능은 선종 승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불교에서는 은둔적인 삶을 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교종의 입장이다.

⑤ 불교에서는 분별적 사고를 지양한다.

## 6. 혜능과 지눌의 사상 비교 이해

### 정답 해설

ㄴ. 선종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우치더라도 나쁜 습기를 차차 소멸시키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수행의 요체(要諦)가 선정과 지혜를 닦는 정혜쌍수이다.

### 오답 해설

ㄱ. 혜능과 지눌 모두 중생이 곧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

ㄷ. 혜능과 지눌 모두 불성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 7. 지눌의 사상 이해

### 정답 해설

첫 번째 관점: 지눌은 선(禪)이 부처의 마음이요, 교(敎)가 부처의 말씀이므로 선종과 교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가 다를 수 없다고 본다.

세 번째 관점: 지눌은 불성을 단박에 깨쳤더라도 습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수행으로 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 관점: 팔정도를 닦는 것은 근본불교의 입장으로 지눌 역시 불교 사상가이므로 긍정할 내용이다.

### 오답 해설

세 번째 관점: 지눌은 본성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보다 참선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수특 52p)

## 번외 O/X 퀴즈 정답 및 해설

1	2	3	4	5
O	X	X	O	O
6	7	8	9	10
O	X	O	X	X
11	12			
O	O			

1. 연기설(緣起說)에 대한 설명이다.(수특 42p)

2. 정견(正見)은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뜻이다.(수특 43p)

3. 중관사상에 따르면 유(有)에 집착하는 것과 무(無)에 집착하는 관점에서 모두 벗어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수특 44p)

4. 유식사상은 의식을 제대로 알고 수행해야 궁극 목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수특 44p)

5. 선종은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즉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 and 해탈을 강조한다.(수특 45p)

6. 원효는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며 일심에서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眞如)와 무명(無明)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본다.(수특 46p)

## 사상검증 N제: 정답과 해설

7. 정혜쌍수는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다.(수특 47p)
8. 세 사상이 모두 여러 종파를 통합하며 조화를 추구했다.(수특 47p)
9. 불성의 직관을 중시한 것은 대승 불교의 한 분파인 선종이다. 불성이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대승 불교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또한 불교는 자아의 탐구를 강조하지 않는다.(수특 48p)
10. 원효는 교리의 공부를 중시했다. 돈오(頓悟)가 교리의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수특 49p)
11. 두 사상 모두 집착의 무더기, 즉 오온(五蘊)은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수특 53p)
12. 유식사상에서는 현상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마음이라고 보고 마음을 비우는 요가 수행을 중시한다.(수특 54p)